

# KIPO NEWS

## 한 · 독일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 실시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특허가 양국에 신청된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방국은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당해 특허를 다른 특허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처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총 8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이 많은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더욱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되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 · 공공(연) 특허역량 무료 진단 서비스 실시

특허청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학 · 공공(연)의 특허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 공공(연)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24.6%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2.3%를 보유('08년 기준)하여 혁신 잠재역량은 매우 높음에 반해, 특허 생산성 · 기술이전 등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로부터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창출된 특허를 보호 ·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특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의 특허관리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대학과 공공(연)을 대상으로 특허관리역량 진단모형\*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분야별로 역량을 진단 ·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특허관리역량 진단모형 : R&D로부터 특허의 창출, 창출된 특허의 권리화 및 보호, 그리고 특허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평가모형. 총 30여 개의 지표로 구성

2011년부터는 특허관리역량을 단순히 진단 ·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연구관리 인증제(연구성과 인증제)'에 반영하여 기관의 연구간접비 비율 및 기관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어서, 특허관리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연구관리 인증제 : 대학 · 출연(연)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 및 연구성과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구비 관리 인증제에 지식재산(연구성과)관리 인증까지 포함하여 연구관리 인증제로 확대 실시('11년). 대학 · 공공(연)이 연구관리 인증을 받을 경우 연구간접비 상향 조정, 기관평가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



## 올 상반기 입법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한·EU FTA 이행법안 등 개정절차 본격 착수

글로벌화가 한창인 지식재산관련 국제환경과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과 '발명진흥법'이 두 달여 뒤인 7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따로 출원을 요하던 것을 신청서만 내도록 간소화하고, 일시에 납부하던 10년치 상표등록료를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등 출원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발명진흥법은 국내외에서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특허정보조사 등과 같은 지식재산서비스 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양 법의 시행을 위한 7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가서명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당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 수출기업이 꼭 확인해야 될 사이트, IP-first!

###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허분쟁정보 제공 사이트 오픈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Center for Office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독일어 약자),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의 독일어 약자)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회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수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시회 준비 노력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에서의 이미지만 오히려 하락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처럼 진출국가의 지재권 제도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특허청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꼭 챙겨봐야 할 국제특허분쟁 관련 핵심정보(지재권 보호 제도, 주요 분쟁사례, 기업 주의사항 등)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포털 사이트(<http://www.ipfirst.or.kr>)를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오픈하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해외 지재권 분쟁정보기반을 고려하여 국가별·주제별 맞춤형 지재권 제도 정보 및 타사분쟁에 대한 선행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무료로 정보서비스할 예정이다.

## 지역의 전략산업, 특허 분석으로 통(通)한다!

### 지재권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역산업발전 방안 마련

특허청은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석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산업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 부산, 강원, 충북 4개 지자체와 특허청이 공동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사업이 수행된다.

그동안의 지역산업발전 전략은 시장과 지역 산업 여건을 중심으로 기획·추진되었고, 특허 분석은 통계 제공의 차원 또는 지역연구개발의 성과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특허, 논문, 시장성 등을 고려한 지재권 분석을 통해 지역의 유망·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연구개발 과제의 합리적인 선정 및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종사자들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현할 전략도 제공한다.

## “아주대 의대 민병현 교수,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영예”

### 2010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수상자 선정발표

아주대 의대 민병현 교수 외 2명(리젠프라이임(주) 출원)이 2010년 상반기 특허기술상에서 특허부문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새로운 생체소재 생산기술인 '세포 유래 세포외기질막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아주대 의대 민병현 교수 등 총 19명의 발명가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으로 특허와 디자인 2개 부문에 걸쳐 총 4개의 상으로 이뤄져 있다.

특허부문인 세종대왕상에는 상금 1,000만 원, 충무공상 상금 500만 원, 지식영상(2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고, 디자인 부문인 정약용상에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세포 유래 세포외기질막의 제조방법'은 동물의 조직 그대로 동결, 건조하는 다른 생체소재들과는 달리, 동물의 연골에서 분리한 연골세포를 고농도로 체외에서 배양 및 건조하여 생체적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생체소재인 세포 유래 세포외기질막(ECM membrane)에 관한 것이다.

이 생체소재는 낮은 면역 반응성과 인체 이식에 적합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적용 질환인 연골 손상은 물론 골막 손상, 피부 결손, 세포이식치료를 위한 기본소재, 성장인자 치료 등의 약물 전달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향후 질병의 치료에 다양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충무공상은 모터와 솔레노이드형 코일을 이용해서 주 제동기능을 구현한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부가 기능 구현 타입 단일 모터 전자 웨지 브레이크 시스템'을 발명한 현대모비스(주)의 김종성 발명자가 차지했다.

지식영상은 '다중 주파수채널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스펙트럼 센싱을 이용한 채널 할당 방법'을 발명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창주 대표발명자와 '칩스케일 패키징 발광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을 발명한 부경대학교의 유영문 대표발명자(한국광기술원 출원)가 수상했다.

디자인부문인 정약용상은 '공기청정기'를 창작한 웅진코웨이(주)의 최현정 창작자가 수상하였다.

제공 특허청